

이야기가 있는 이애주춤

- 대동4무 舞巫武無 -

서울대학교 이애주

舞

자연의 춤

춤은 자연 그 자체
자연은 모든 존재의 근원

우리 춤의 우주공간

■ 不立文字



소나무춤



〈단호사의 적룡송 (창원 이영복 화백)〉



〈대관령 휴양림 (현석 이호신 화백)〉



〈솔바람누리 (이호신 화백)〉

적룡송과 이에주춤

수연 박희진

무(空前絶後)의 위대한 시업(詩業)이 드디어 성취되다.
이 소나무 절창 모음, 소나무 만다라! 이 시집을 읽
것은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발견하고, 정화
연마하여 풍성한 행복을 누리는 일이다.

—金奎榮(철학박사 학술원 회원)

박희진 시집
소나무 만다라

박희진 시집

소나무 만다라



1. 無

舞 舞

舞 舞 舞 舞 舞

無極而太極

無極

太極 

陰陽

하늘사위: 하늘을 논하는 사위

땅사위 : 땅을 논하는 사위

三才

삼태극사위: 하늘과 땅과 인간이 창조하는
춤사위

四象

태음-소양-소음-태양: 사방치기

五行

2. 巫

天地人

三 + 丨 = 工 → 巫

三進三退

삼진을 통해서 하늘이 열리고
삼퇴를 통해서 땅이 열리며
그 가운데 사람과 만물이 상생조화함

三一神誥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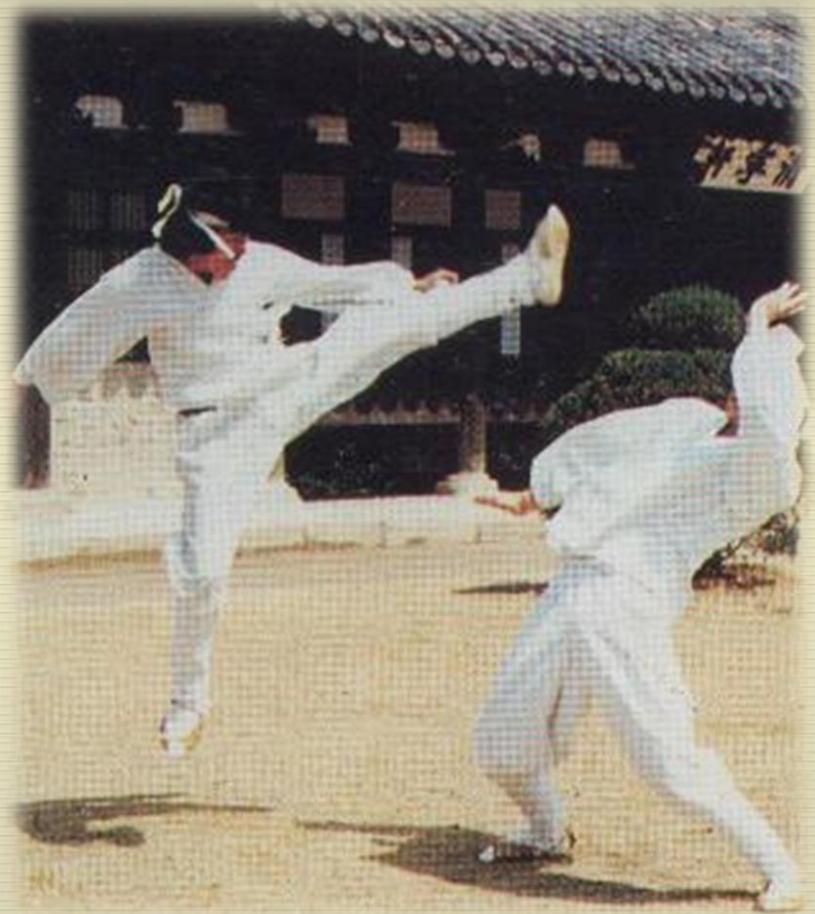
3. 武

武의 역동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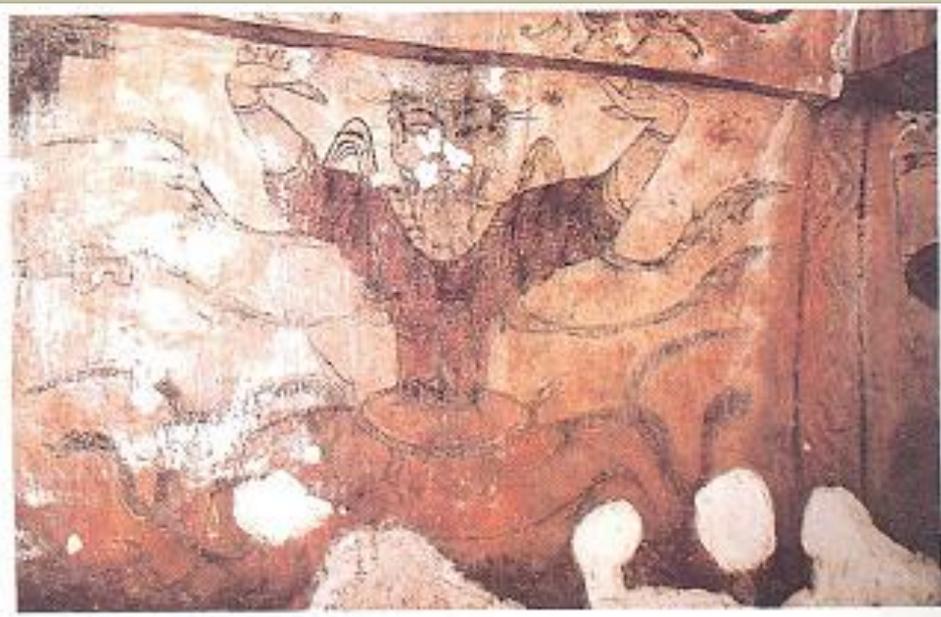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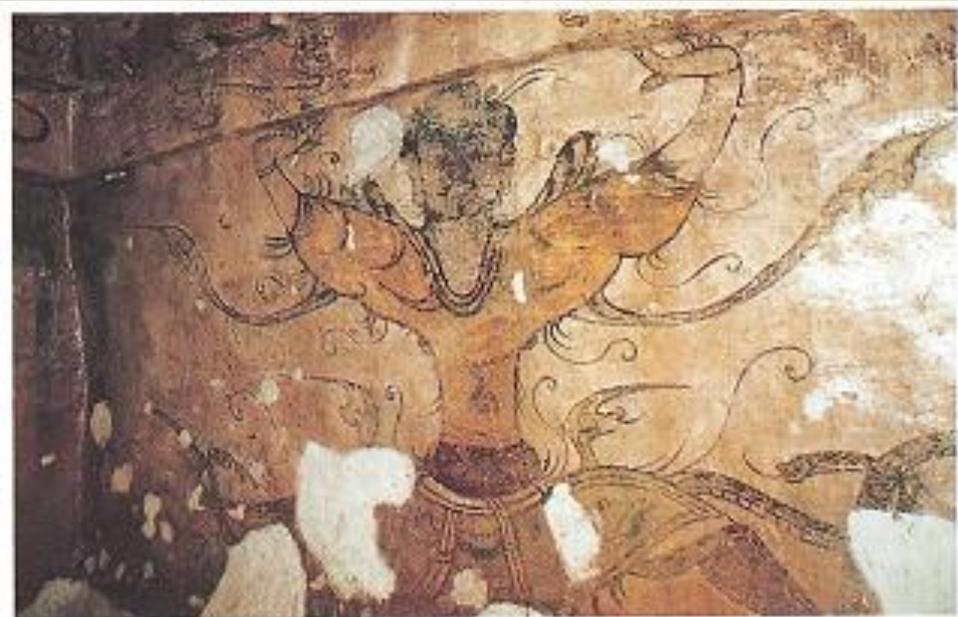
마음을 튼튼히 닦는 몸의 단련

武而舞 舞而武

안으로는 굻대를 세우고
밖으로는 屈身の 동작을







4. 舞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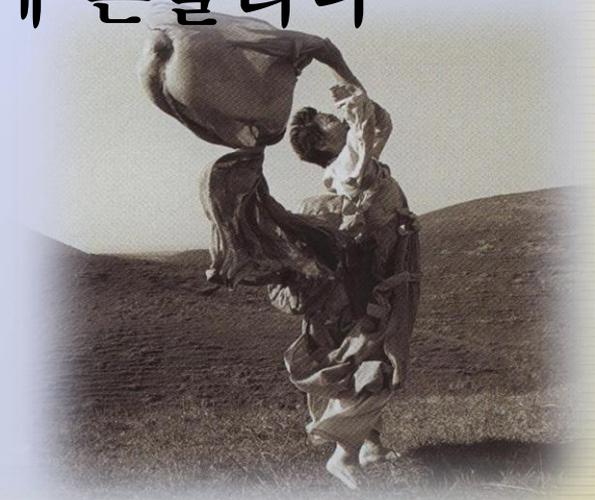
舞

無 (없을 무) + 舛 (어긋날 천)

춤과 氣

기운타기

자연스럽게 내맡기기
나뭇가지는 바람에 어떻게 흔들리나
물은 어떻게 흐르나



心氣身

心卽氣 氣卽心 (맹자)

마음(心)이 움직이고 작용하는 것이 氣의 움직임으로 나타나고
그 기운의 모아짐이 만물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身
기의 작용은 호흡작용

性命精

性 眞性無善惡 上哲通
命 眞命無清濁 中哲知
精 眞精無厚薄 下哲保

返眞一神 惟衆迷地 三妄着根 曰

心氣身

心 心依性 有善惡 善福惡禍
氣 氣依命 有清濁 清壽濁妖
身 身依精 有厚薄 厚貴薄賤

一意化行 返妄卽眞 發大神氣 性通功完是

삶의 몸짓

生命: 命이 생김

춤사위: 그 命의 기운이 확산

태어남 “사람이 나면서부터 춤은 잊셨다.”

〈한성준〉 

天命之謂性

率性之謂道

修道之謂教

춤과 정신

숙임 (낮춤)의 춤

절드림 (천지인춤)

비움, 성찰, 참회
오체투지

宇我一體 梵我一如



숨쉬기

一微塵中含十方

티끌 하나에도 우주의 무한 법계가 들어있음
인드라망 - 그물코의 무한한 확산
프렉탈 - 무한의 프렉탈 그물

一中一切多中一

一卽一切多卽一

하나에서 확산되는 무한성과 총체성

無

無始無終

一始無始一 一終無終一

一念即是無量劫

승무

至高至順
無尋自在

